

고은 불교 대하소설

사나이들 돌아간 뒤

“여기 박동만이라는 사람과 장일순이라는 사람이 있을 터이요... 그 사람들을 내놓지 않으면... 이 섬의 갈대지붕 따위야 대변에 붙질러 한 줌 재로 날라가게 할 터이요. 아니 섬 전체를 다 태워 민둥산을 만들어 버릴 터이요...”

“여기에 샘이 서너군데 있디지요? 그 샘에 독약을 넣어버릴 터이요. 자아 여기까지가 우리의 뜻인 줄 알아서 하구려...”

“보아하니 중 행색인데... 무슨 계략(計略)을 꾸며 나라의 변방을 어지럽히려고 이렇게 모여들어 사람을 고통하는 것이오?”

인담을 저으기 당황하게 만들었다. 필시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으리라.

우녀가 벌써 회색해지기 시작하는 먼동 무렵에 더이상 방관할 수 없어서였는지 앞으로 나섰다. 그러자 그녀 뒤에 가려져 있던 수원 수월들이 슬쩍 몸을 돌려 얼굴을 숨겼다.

“대낮에도 얼마든지 여기에 올 수 있거늘 어찌 새벽에 들어 닥치지 않으면 안될 까닭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손님 세 분께서는 그 두사람을 잡아다가 어찌할 생각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그 놈들이 있다는 말



그때야 세 사람 중의 맨 뒤에 서있는 나이 지긋한 사공이 나섰다. “그들이 우리 선단의 선창에 둔 함룡(函龍)을 열 수 있습니다... 그 함룡으로 칼을 쓰윽 베었다. 어둠 속에서도 어떤 빛이 그어지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수원이 숨어있다가 “앗!”하고 비명을

24

우선 이곳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햇빛 하나였으므로 한 사람인줄 잘못 알고 있었다. 아니 그것도 이 섬안의 누군가가 밝힌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아니었다. 낯선 세 사나이가 한 개의 햇빛을 붙여 들고 있었다.

인담이 나섰다. 인담과 우녀 뒤의 어둠 속에 수원 수월이 숨어있었다.

새벽 예불이 난감하게 되었다. 인담의 말은 예불에 구실을 붙이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수행자들입니다. 지금 예불시간이니 예불을 마친 뒤 손님들을 맞아 들일까 합니다”

“손님이라! 하하하... 우리는 손님이라 우리 선단(船團)의 배 한 척을 옮겨 가지고 도망친 놈들을 잡으러 여기에 왔을 터이니... 이렇게 점잖게 말이나 올 때... 그 놈들을 내놓기 바라오”

“허허 무슨 말씀이신지”

하고 인담이 시치미를 떼고 그들의 만만치 않은 댕겨리에 맞섰다.

“우리는 저 남방의 제주도를 지나 유구국(流求國)까지 다니는 무역선단 뱃사공들이요. 청나라 복주(福州)까지도 우리가 다니는 세상이란 말이요... 그런데 얼마전 이 일대를 한밤중에 지나다가 선단 끝에 있는 배 한척이 갑작스럽게 사라진 것이요. 어서 아는데로 이실직고(以實直告)를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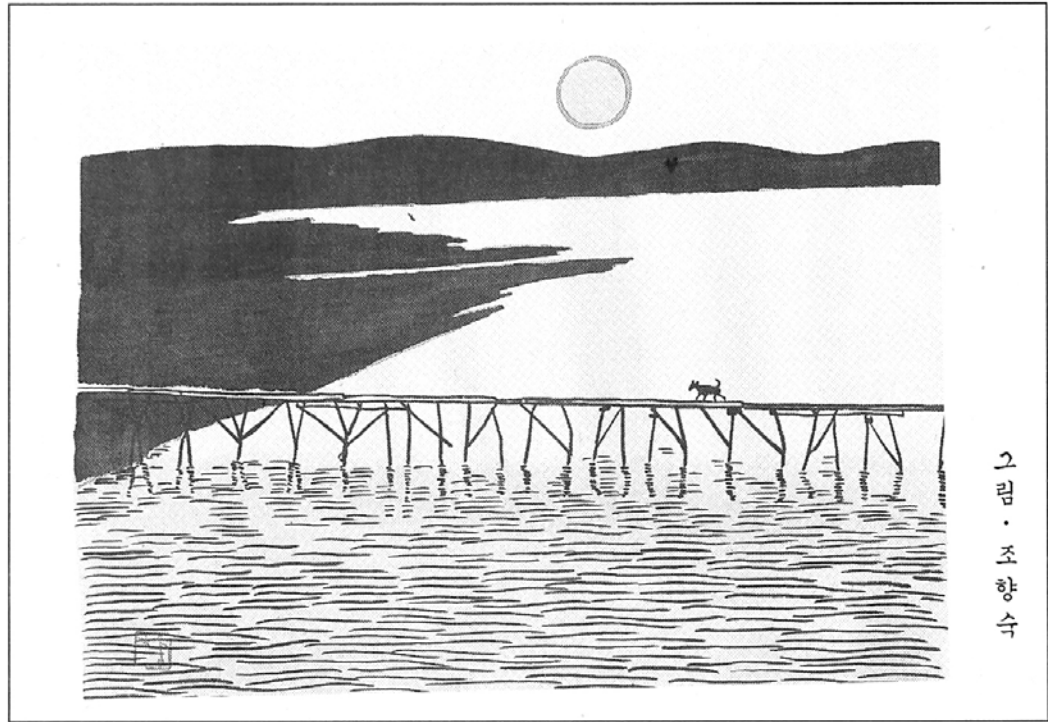


그림 · 조항숙

“수행이란 나 혼자 하늘로 올라가는 공부 아니라 세상의 잘못을 멈추게 하는 공부입니다”

기 바라오”

“허허 무슨 말씀이신지”

인담은 이 말만을 되풀이 하였다.

“아무래도 이래서는 안되겠구려... 저 안남(安南)의 수부(水夫)들이 행하는 용왕제를 지내야 하겠구려”

이곳을 상대하는 그 중년 사공의 말투는 전혀 뱃사공의 거친 성정(性情)이나 급한 폭행 따위와는 거리가 있는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같은 사실이

이겠지요?”

“아니오... 나는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숨이 희생되는 일을 막는 것이 우리 수행자의 본분(本分)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잡혀 간다면, 잡혀가서 죽게 된다면... 그것을 한사코 막아야 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수행이란 나 혼자 하늘로 올라가는 공부 아니라 세상의 어긋나는 일을 멈추게 하는 공부입니다”

말하자면 청나라 연경(燕京) 회회로(回回路)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서역의 보물이 들어있고 바로 그것이 들어있는 금지막힌 함룡의 열쇠를 박가와 장가가 가지고 있음에 틀림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함룡을 열쇠 없이 부수어 버릴 수도 없습니다. 함룡 자체가 금은 마노 호박들이 박힌 보물로 된 상자니까요”

한 사나이가 발 뒤꿈치까지 닿을라 말락하는 긴 칼을 차고 있었다. 칼집에서

지르며 나타낸 것이다.

그는 열쇠가 가득 피어있는 머리의 고통 때문에 시달리는 터인데 거기에 그를 잡으러 온 선단의 동료까지 나타났으니 더이상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관철하는 척 할 수 없었다.

“박동만이요. 내가!”

그 때 햇빛이 그의 얼굴 앞에 더 밀어졌다. 햇빛 빛깔에도 그의 충혈된 눈이나 온통 붉기가 나 있는 사발머리가 징그러게 보여졌다.

햇빛 사나이가 얼른 햇빛을 낮췄다. 혹시 그 박동만, 그러니까 수원이 문둥병이라도 걸린 것이 아닌가 하고 사나이들은 속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나를 죽여주오. 지금 나는 지극히 몹쓸 병에 걸려있고... 나와 함께 여기에 온 장일순이는 이미 저승 사자가 데려가고 말았오... 그 함 열쇠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단 사령(司令)인 우공(愚公)이 가지고 있오... 우사령이 그 청

나라 보물을 사사롭게 차지하려고 우리에게 누명을 들쳐온 것이 틀림없을 것이오... 가서 우사령을 조져보시오... 나야 데려가도 그만 안데려가도 그만이나... 내 몸을 병이 옛 동료에게 전염될까 그것이 두렵구려... 호욱”

그때였다. 맨먼저 나왔던 중년 사공이 한 발짝 물러서며 동행을 이끌었다.

“돌아가자. 이 놈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는 다음에 도모하기로 하고...”

우녀가 말하였다.

“다음에 이곳에 올 때는 이런 일로 오지 말고 공부하러 오시지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들은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 아래 바위너셀에 매 놓은 배를 타고 파도 위에 떠 갔다.

그동안 수원은 문둥병으로 행세하는 괴물을 내었지만 수원은 우녀 뒤에서 허리를 굽혀 곱사등이 모양을 하고 있었다.

첫째는 아직 어둠 속이었고 둘째는 머리를 짝은 모습이었고 그것으로 모자라 열꽃을 문둥병으로 속이는 방편(方便)까지 내어서 그 세 사공을 아슬아슬하게 돌려 보낼 수 있었다.

더구나 선단 사령이 저 혼자 독자지하려는 함룡의 열쇠를 꺾기엔 사실도 밝혀졌으니 세 사나이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었다.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왔오? 문둥병 이라니오?”

난 수원의 눈을 살펴보니 사나운 충혈이 다 나아버린 맑은 눈이었던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그의 머리통에 채워진 중기에도 붉은 빛깔이 보라빛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이제 아침이었다. 아침의 바닷바람은 지난 밤내내 불던 그 바람이건만 그 바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이었다.

“바람이 씻어주시는 것이겠지요?”

인담이 수원을 지극히 아끼는 심사로 그렇게 말하였다. 그의 곁에 우녀가 와 있었다.

“오늘 예불은 수원스님이 혼자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녀도 매우 흐트러짐 없이 아침바다의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먼 곳이었다. 마음 속에서는 멀고 가까움이 풀이 아니건만 그 마음 밖의 경계에서는 먼 곳이였다.

먼 곳을 바라볼 때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귀신에게나 가장 영혼적이다.

천축 제간고원의 사자나 조선 백두대간(白頭大幹)의 호랑이가 먹을 것을 먹고 난 뒤 바람에 꼬리의 털을 움직이며 먼 지평선이나 저 아래의 어떤 소멸 직전의 시점(視點)을 바라볼 때야말로 얼마나 의연한 정신의 기상을 표상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우녀의 깊은 눈 안에 달려오고 있

마음속에서는 멀고 가까움이 풀이 아니건만 그 마음밖의 경계에서는 먼 곳이 있다. 먼곳을 바라볼 때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귀신에게나 가장 영혼적이다.

하고 우녀가 슬쩍 웃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 웃음으로 끝내지 않았다.

“장부가 실사 죽을 고비에 다다랐다면 들 거기 한 오리 거것으로 벗어나고자 해서는 안됩니다. 거것이란 잘못 알고 있는 동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성을 죽이는 살생입니다”

수원, 그러니까 박동만은 갈대장사 모퉁이로 물러가서 어린 아이처럼 훌쩍훌쩍 울었다.

이런 무서운 혼계를 누구보다 인담이 그의 가슴속에 심득해줄 만큼 받아들여야 하였다.

“어디서 저런 조사(祖師)의 경책이 마구 쏟아져 나온단 말인가. 정녕 우녀스님의 입은 한 여인의 입이 아니라 사자의 입이로다. 다시 한번 두렵도다. 두렵도다”

만화가 수원을 달래려 갔다. 한동안이 지나갔다.

“스님!”

하고 그가 정사 뒤쪽에서 인담을 불렀다. 이 섬에서 인담이나 우녀에게는 굳이 범명을 붙여 부르지 않고 스님이라는 여는 이름세만으로 불리어 갔다.

“스님! 수원스님의 눈이 붉은 것이 다 사라졌습니까!”

과연 인담이 성큼 걸어가서 실컷 웃고

는 아침바다의 그 정숙한 수평선의 일자(一字)야말로 세상과 자아가 온통 그 일 자일 수밖에 없는 궁극 직전을 그려주는 것이었다.

인담과 우녀는 아침 공양의 죽을 먹기에 앞서 빈 뱃속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 둘 큰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아직 바깥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어느 때보다 촉박의 감정에 예워싸여 있었다.

“스님이 이곳 도량을 열으셔서 우리가 이토록 환희의 나날을 이루어 갑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아니 우녀스님이야말로 이 도량을 열어서 한 회상을 이룬 것입니다”

“하기야... 어찌 우리 둘이나 열사(열사)의 일이겠습니까. 열사(열사)의 속세(俗世) 만으로도 삼라만상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렇게지요”

“스님 감사합니다”

“우녀스님한테 나도 감사합니다”

그들은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느 순간들마다 가장 용기 있는 권화(權化)라고 믿고 있었다.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방에 들어갑시다. 한 종지 죽이 공부하는 법당(法堂)을 옮기지 않겠구려 단청(丹靑) 하겠지요”

불교 성순 교지례

백두산·연길·북경 5일

- 출발: 5월 3일, 6월 3일
- 동참금: 100만원
- 일정: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스리랑카 6일

- 부처님 진신사리 진전-
- 출발: 6월 2일
- 동참금: 118만원

■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 수준)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 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 인원: 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인도네시아 5일

-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보로부두르 사원-
- 출발: 5월 7일, 6월 4일
- 동참금: 95만원

대만 5일

- 불광사·화면·타이페이-
- 출발: 5월 2일, 6월 5일
- 동참금: 65만원

국불교유적지 13일

- 출발: 5월 30일
- 동참금: 195만원
- 일정: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송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크로드 불교 유적지 11일

- 출발: 6월 3일
- 동참금: 188만원
- 일정: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명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동치-북경-서울

벵·네팔 10일

- 출발: 5월 27일
- 동참금: 230만원
- 일정: 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장제-시가제-라사-카트만두-서울

도·네팔·태국 10일

- 출발: 5월 26일
- 동참금: 150만원
- 일정: 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르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와이엠부넛)-방콕(세벽사원 에메랄드 사원)-서울

HVECHO ADVENTURE TOURS, LTD. **헤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